



곡성 문화

2016년(단기 4349년) 5월 23일 / 4호

발행인 : 곡성문화원장 고광운 편집인 : 방신호 ☎ 061-362-0890

장미꽃 연서

북풍한설 시린 설움에도
가시 옷 곤두세워 몸을 사려
박동치는 첫사랑 설레임으로
다정하게 프로포즈하는
장미와 웃음

형형색색으로 만개한
곡성세계장미공원의
그윽한 눈빛, 황홀한 장미향

천사(1004)장미 천만 송이가
지구촌 곳곳에 연서를 띄워
사랑을 속삭인다

눈부신 보석의 찬란함으로
시인, 묵객, 나그네 발목 잡는
칭정고을 곡성 장미 여왕님

꽃반지 목에 걸고 님을 불러
세계로 미래로 꿈과 사랑의
황금 종을 울린다.

시 / 한국문인협회곡성지부장 역임,
전라남도시인협회 이사 우금수





삼강오륜의 현대적 가치와 효경칭찬생활문화 운동

-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살기 좋은 국가를 위하여 -



“사람이면 다 사람이 나,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답지 못할 때 흔히 금수(禽獸)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삼강오륜은 원래 중국 전한(前漢) 시대의 거유(巨儒) 동중서(董仲舒)가 공맹(孔孟)의 교리에 입각하여 삼강오상설(三綱五常說)을 도덕적 규범으로 논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삼강은 유교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인 임금과 신하(군위신강, 君爲臣綱), 부모와 자식(부위자강, 父爲子綱), 남편과 아내(부위부강, 夫爲婦綱)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그리고 오륜은 오상(五常) 또는 오전(五典)이라고도 하며, 유교에서의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의 다섯 덕목(德目)을 말합니다.

맹자는 인륜(人倫)이라고 하여 “부모와 자식은 친애하고 효도·공경하며(부자유친 父子有親), 임금과 신하는 의롭고 충성해야 하며(군신유의 君臣有義), 남편과 아내는 화목·겸손하고 역할을 다해야 하며(부부유별 夫婦有別), 형과 아우는 존경하고 공손해야 하며(장유유서 長幼有序), 친구는 서로 돕고 신의가 있어야 한다(붕유유신 朋友有信)”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교의 실천 윤리들은 상하관계적 질서의 확립을 통해 그동안 우리사회의 기본윤리로 존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세대 간·사회계층 간에 다양한 가

치관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병리현상 같은 윤리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상황에 맞는 전통적 가치관과 보편성을 가지는 가치관의 재확립을 위한 삼강오륜의 현대적 가치 재조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삼강오륜의 대부분은 ‘만행의 근본인 효를 바탕으로 가족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위자강, 부위부강, 부자유친, 부부유별의 가르침은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가 화합하면 집안이 평안하다. 감사 속에 기쁨과 보람이 있고, 칭찬 속에 인정과 배려가 있으며, 화목 속에 소통과 행복이 있다’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실천이야말로 만복의 근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유유서와 붕유유신의 가르침은 ‘인성은 인격의 척도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천애인(敬天愛人)을 바탕으로 개인은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 신뢰하고 소통하는 사회생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군위신강과 군신유의는 ‘애국생활을 실천하는 국가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민, 주인의식과 희생정신으로 화합하는 국민이야말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삼강오륜의 쌍무적 호혜정신과 ‘상생의 삶’을 재조명해 보며 『효경칭찬생활문화운동』에 앞장서서 행복한 가정·아름다운 사회·살기 좋은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글/ 곡성문화원장 고광운

곡성향교 전교 취임사

충효의 얼이 살아 숨 쉬는 의절의 고장 곡성을 빛나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향교 유림(儒林)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 이국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조상래

도의원님, 그리고 각급 기관사회단체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곡성향교는 1413년 태종 13년에 창건하여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바탕으로 정치, 교육, 문화의 선구 기관으로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곡성은 예로부터 구국충신과 효자와 효부가 많아 충효(忠孝)의 얼이 살아 숨 쉬는 의절(儀節)의 고장으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곡성향교 유림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날로 패륜(悖倫)과 무질서가 만연하여 도덕적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유교의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실천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곡성향교가 인본중심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향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청년 유림 수가 적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향교를 대표하는 전교로서 곡성향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

하는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 향교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곡성향교의 유지를 받들어 유림양성에 뜻을 두고 지역사회의 덕망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향교를 안정되게 운영함으로써 모든 유림들의 명예심을 지켜내고, 유교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데 심혈(心血)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유림 상호간 존중과 화합으로 지역사회의 윤리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곡성향교가 되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이임(離任)하신 운곡(耘谷) 윤남열 전교님의 후덕(厚德)한 인품을 본받아, 크고 작은 향교의 숙원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향교의 모든 사업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부족하오니 곡성향교의 발전을 위해 각자가 투철한 유림정신을 가지고 유림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적극적이고 아낌없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곡성향교의 유구한 전통과 발전을 위해 전교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16년 2월 22일)

글/ 곡성향교 전교, 곡성문화원 이사 조덕기

살아 숨 쉬는 향교 · 서원 체험학습

“축제 한마당” 과거시험 보고 놀자



곡성군 지자체(군수 유근기) 주최, 곡성문화원(원장 고광운)이 주관하는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체험학습이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와 전라남도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찬주)의 적극적인 후원아래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곡성향교(전교 조덕기)와 옥과향교(전교 김용원), 덕양서원(용산재)에서 곡성 관내 유·초·중·고등학교(36개교) 재학생 및 지역주민(3,0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삼강오륜의 현대적 가치와

효경칭찬생활문화 의식 함양

“축제 한마당! 과거시험 보고 놀자”를 주제로 한 이 체험학습은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을 통하여 곡성의 향교와 서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계승하는 전통문화 교육의 구심점 및 산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특히 ‘삼강오륜’의 현대적 가치 재조명을 통한 충효인성교육을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효경칭찬생활문화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삼강오륜의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효경칭찬



생활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홍보할 예정이다.

친구야! 과거시험 준비하자(3. 1~4. 30)

곡성군 관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서 향교와 서원 그리고 과거시험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하고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삼강오륜의 도덕과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안내하고, 명심보감 달력 제작·활용, 동요, 놀이지도, 효행 일기쓰기, 향시 과거시험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과거시험(향시) 및

선비놀이왕 선발대회(4. 1~10. 31)

곡성향교, 옥과향교, 덕양서원에서 3개 권역 학생들이 해당학교 단위로 과거시험(향시) 선비놀이왕 선발전을 실시하여 선

비문화(진사, 생원)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아버지 참사랑 동요 및 심정판 소리 한 대목 부르기, 흥겨운 전통놀이로 신나게 펼쳐지고 있다.

과거시험(대과) 및

선비놀이 왕중왕 선발대회(10월 중)

각급학교별 향시 합격자들과 선비놀이 왕들을 대상으로 곡성향교에서 과거(대과)시험 및 선비놀이 왕중왕전을 진행하여 암행어사 체험을 하고, 향시 대과 장원 및 우수자를 표창하는 프로그램이다.

할머니 인형극 심청전 공연(4. 1~10. 31)

곡성군 관내 유·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할머니 민들레인형극단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장미와 함께 심청의 효과 열이 피어나는 효 체험의 장이 되고 있다.

대과 급제자와

선비놀이왕 행차(10월 심청축제 기간)

과거 합격자와 선비놀이왕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취타대를 앞세우고 곡성읍내에서 기차마을 심청축제 행사장 무대까지 시가행진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살기 좋은 국가를 위하여

우리 곡성문화원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살기 좋은 국가를 창출하기 위하여 효경칭찬생활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문화체험은 삼강오륜의 의미를 시대정신에 맞는 현대적 공유가치와 보편윤리로 재정립하여 교육과정과 관련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애국, 존중, 책임, 정의, 협동, 나눔, 감사와 배려의 정신을 함양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문화재의 보호와 보존·전승에 기여하며, 훈훈한 정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 넘쳐흘러 온고지신(溫故知新)과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교훈을 이어받아 충효 인성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글/편집인 곡성문화원 회원 빙신호

스스로 서고,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느끼는 학교

—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심청골짜나라학교 —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재)은 학업 중단 위기학생에게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 인성교육 중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기숙형, 통학형)을 지정하여, 학업중단을 막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열어주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부터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심청골짜나라학교(대표 강채구, 교장 양용석)는 일반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운 위기 학생들에게 대안 위탁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업중단을 예방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이 대안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지원 아래 곡성군 석곡면 명강초등학교(폐교)를 리모델링하여 공방형 체험학습과 다양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해 학생들의 꿈을 알차게 키워가는 자원봉사 위주의 시범적인 위탁교육기관이다.

위탁교육 대상은 전라남도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가정해체, 가정폭력학대, 방임, 학교폭력, 따돌림 등 가정과 학교,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한 학교부적응과 가출, 각종 폭력 속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치유하는 가

족공동체학교이다.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학교수업으로 인정되어 소정의 과정 이수 시 학년 수료인정 및 원적교 졸업장을 받게 된다. 학교생활 부적응 위기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해 위탁기관 관계자 모두의 관심과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는 시점이다. 이 학교 강채구 대표와 양용석 교장은 “위탁교육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아픔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소명의식에 바탕을 둔 봉사하는 마음으로 꿈과 희망 가득 즐겁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행복해 했다.

배움이 즐거운 공방형 대안학교 함께 가꾸는 심청골짜나라 학교

교육과정은 일반 고등학교와 같은 국민 공통기본교과와 함께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뉴스포츠, 도자기, 천연염색, 전통음식, 승마교실, 스키교실, 카누체험, 원예, 미술교실, 집단상담, 실용음악 등으로 융통성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진로교육, 인성교육, 적응교육 등 전인적 성장과 사회적응력 제

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심청골짜나라학교는 학생과 사회인의 1:1 멘토링제, 대학 및 우수 산업체 견학, 힐링캠프 등을 통하여 위기 학생들이 일정 기간 보호, 상담, 치유 후 소속 학교로 돌아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각자의 적성에 맞는 큰 비전과 열정을 갖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기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전국 최우수 대안교육기관을 꿈꾸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앞날이 막막했다. 학교를 그만둘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찾았다. 정말 꿈과 희망에 부풀어있다. 정말 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다시 본교로 돌아가서도 열심히 할 것이다. 나의 꿈을 찾게 해주고 나를 바래게 해 준 심청골짜나라학교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학업중단은 학생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크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학업중단으로 야기되는 사회적비용 부담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학생들을 올바르게 행복한 민주



시민으로 키워 나가는 취지로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기에 지역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길 기대한다.

“아무 대가 없이 함께 도와주신 많은 후원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고 인사를 드리며 웃음꽃을 피우는 강채구 대표의 숙연한 의지와 각오가 심금을 울린다.

글/곡성문화원 회원 류재주

지역 명문고로서 제2의 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곡성고등학교

교장 박래섭

곡성고등학교(교장 박래섭)는 1973년 곡성여자고등학교로 개교하여 1991년 곡성고등학교로 개명된 후, 2005년 석곡고등학교와의 통합을 통해 농산어촌 기숙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이후 2016년 2월 제41회 졸업생 145명(총 6,319명)을 배출하였다. 2013년 9월 1일 부임한 제13대 박래섭교장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학력향상이라는 교육철학으로 ‘창의적인 학생, 실력있는 학생, 예절바른 학생’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 주도 인재를 육성하고자 진로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자치문화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신장시키는 곡성고등학교! 지역 명문고로서 제2의 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진로설계 역량강화를 통한 미래 인재육성
진로교육과 학생자치문화의 조성을 통한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진로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입학 전 자기주도 Dream 캠프를 실시하여 진로목표 설정과 진로설계 능력을 기른다. 진로코칭과 학습코칭, 감성코칭, 배움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의 힘과 동기를 키우고, 진로개척의 힘을 함양한다. 한편, 각 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저명한 CEO 및 전문가 30여명을 초빙하여 진로탐색 및 전망, 준

비과정 등 자신의 진로결정 능력도 기른다. 또한 서울대학교 서포터즈 2명, 멘토 21명이 함께하는 DREM CAMP를 실시하여 자신의 꿈과 진로를 찾고, 자기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청년 멘토와의 교류를 통해 롤모델을 설정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아름다운 곡성고 학생자치문화의 활성화
학생들의 자치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학생들의 체계적인 자치문화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5학년도에는 학생 자치문화 연구학교를 운영하였다. 꿈 말하기 대회, 학교장배 교내 스포츠클럽대회, 애플데이, 작은 음악회 등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행사를 기획·운영·평가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곡성고, 행복한 학생이라는 표어로 학생들의 육성문화, 학교폭력, 교사의 지도 불응 등 폭력적인 청소년문화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수준별 학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력을 신장시키고 있다. 학생들은 희망자 전원 기숙사 입사와 곡성아카데미(심화반) 수강의 기회가 주어지고, 국내 우수 인터넷강의 수강은 물론 입학 전 3주간 사전 예비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영·수 특별수업이 이뤄진다. 방학기

간에는 수도권 우수대학 캠퍼스 투어,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자기주도학습반 전용 자율학습실과 별도 수준별 특별지도를 받게 되며 우수인재에게는 역량강화를 위해 글로벌 리더 국외 체험연수 우선 추천의 기회도 제공된다. Peer-mentoring은 학급내 우수학생이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완전학습시스템을 사전 교육한 후 학기별 4명 1개조로 편성해 자투리시간을 이용해 친구들끼리 상호협력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곡성아카데미프로그램은 곡성군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영·수 과목에 외부강사 6명을 채용해 집중적인 심화수업을 실시한다. 자기주도학습반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중간반을 위해서는 학생 희망을 받아 필요 교과를 개설하여 일과 후나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는 Hi Edu U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EBS 방송, 인터넷강좌 등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위반 학생들을 위해서는 ‘튼튼반’을 운영하여 정규 교과시간 이외에 기본적인 학습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로와 진학을 연계한 동기강화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학생들의 진로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따라 기존의 2개 과정(인문사회, 과학기술과

정) 외에 진로진학집중형 교육과정 3개 과정(의약학, 예체능, 직업과정)을 더 추가하여 세분화하였다.

한편, 희망자의 수요 조사에 의해 고급화학, 체육과 진로탐구, 시장청음, 미술전공실기, 피부헤어미용, 제과제빵, 패션디자인 분야 등 7개 과목을 개설하여 이수하게 함으로써 진로와 직업탐색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미래 폭넓은 인재육성을 위한 인문학 강좌 (WE-FI : Whole-rounded Education with Flexible Insight)를 개설하여 특강중심 인문학 강좌 3회, 주제중심 인문학 강좌 12회, 체험중심 인문학 강좌 1회,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학기 3회, 소통을 위한 교직원 인문학 연수 등, 이밖에도 진로진학지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교원연찬회를 개최하고, 진로탐색 구술면접 캠프 등 다양한 진로진학 입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수한 곡성토박이 수능 만점, 선골 소년의 기적 후배들에게 귀감
지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곡성고등학교 백주홍군이 모든 과목에 만점을 기록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백군은 삼기초와 곡성중을 거쳐 곡성고등학교에 진학한 순수한 곡성토박이로서, 오직 학교교육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성취한 결과여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제1회 곡성효문화상(谷城孝文化賞) 수상

효행부문

곡성고등학교 3학년 김세진



청각장애를 지니고 힘들게 살아가는 부모님을 위해 어려서부터 주변사람들과의 소통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으며,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남다른

효성으로 학업에 열중하여 타의 모범이 된 학생이 자랑스런 효행부문 수상을 받게 되었다. 효행상의 주인공은 청각장애(2급)인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곡성고등학교 3학년 김세진(18세) 학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정형편이 빈곤하나 늘 자신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청력이 손상되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생활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해온 김양은 부모님과 가족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사람들과의 입이 되고 귀가 되는 효성심이 지극한 소녀로 자랐다. 스스로 수화를 익혀 부모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부모님께서 생활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학생에게 인근 어르신들은 물론 학우들과 선생님들의 칭찬이 감동을 주고 있다. 김세진 학생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부모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항상 종이를 휴대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써서 대화가 잘 이뤄지도록 했다.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면 병원에 직접 모시고 가서 부모님의 아픈 곳을 대신 말해야 했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도 부모 대신 고르고 사야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과 소통을 담당해줄 때마다 상황을 설명하고 배려를 구하면서 부모님의 아픔을 효성으로 안아드리고, 오직 자신의 미래를 위해 꿈과 희망만을 바라보며 스스로 고통을 참고 이겨내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고 한다. 천성이 착하고 매사에 성실한 김양은 수시로 학교생활에서 받은 많은 상장들을 부모님께 보여주거나 선생님들의 칭찬을 수화로 전달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한다. 학교생활에 바쁜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말에는 항상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고 알뜰살뜰하게 모셔드리는 효행 소녀에게 주변사람들은 마치 효녀 심청을 닮았다고 칭찬이 자자하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깨끗하고 당차게 생활하며 오직 부모님을 지극히 봉양하는 아름다운 효행심이야말로 현대판 심청의 효와 열이 살아 숨 쉬는 심청고을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효행상을 수상하는 자랑스런 김세진 양과 부모님의 앞날에 곡성문화원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큰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사회복지부문

진성CNC 대표 서형배



자랑스런 사회복지부문 효문화상은 남다른 애정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봉사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화합 및 소통에 이바지한 공이 지대한 곡성군 결면 마전리

진성씨앤씨(주) 서형배 대표(41세)가 수상하게 되었다. 그는 2012년부터 매년 8.15 광복 기념 만민 한마당 체육대회 시 행사비 일부 및 물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목화축제에도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식수를 제공하고, 건조기, 김치냉장고 등 이백만원 상당의 경품을 기증하여 면민 모두가 즐겁고 풍성한 축제가 되도록 하는데 공헌했다. 또한 2014년 신축된 결면노인복지회관에 부대 편의시설인 TV와 집기 일체를 기증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와 나눔을 실천했다. 그리고, 결면 지역의 청소년과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2015년 8.15 행사시에 초, 중, 고, 대학생 4명에게 장학금 이백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품 제작·구입 기증하여 참가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등 곡성군생활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해마다 복날이면 닭백숙을 제공하여 마을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어와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매년 심정상품권(2백만원) 구입 및 연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기탁하는 등 유력한 곡성의 경제살리기 기수가 되고 있다. 그는 일찍이 20~30대 청년시절부터 신용보증기금과 BBS 자문위원, 순창군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국제와이즈맨 봉사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봉사정신이 몸에 배인 실천가로서 곡성군수 표창을 비롯 결면청년회와 노인회 감사패 등 많은 수상을 한 바있다. 최근에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 기탁금으로 1천만 원의 기부를 하는 등 사회 환원 정신이 투철한 훌륭한 기업가로서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금년(2016) 1월 우리 곡성에서 유치한 제1회 국회의원배 전국초등학교 클럽 축구대회 시 응원 현수막을 게시하고, 축구장을 찾는 관객을 위해 식수 및 음료수 등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하였다. 곡성을 찾는 관광객과 외지인들에게 의절의 고장 곡성의 훈훈한 정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앞장선 기업가 서형배 대표(41세)에게 군민의 뜻을 모아 감사와 찬사를 드리며 진성씨앤씨(주)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2015년도에는 전라남도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한 곡성군 축구대표팀의 유니

문화예술부문

곡성문화예술단

곡성효문화상 문화예술부문은 2010년 11월 우리 곡성 지역의 예술 창작 전문가와 직장인, 주부 등 지역 주민으로 창단된 이래 소외된 농촌에 음악을 통한 문화활동 공유, 각종 음악회 등 공연을 통해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곡성문화예술 단체가 수상하게 되었다. 2014 곡성군문화센터 상주단체 및 전남도 전문예술단체, 전남행복문화보부상 단체로 지정 받았으며, 2015 곡성문화예술단 사단법인 지정, 사)곡성문화예술단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문화예술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단체는 2013년부터 매년 한가위 풍크르대회를 개최(3회)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2014~2015 찾아가는 문화 솜사탕음악회(9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군민의 문화행복 증진과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14년 이후 곡성군 문화센터에 상주하여 청소년 취락 피라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게 하는 등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가족사랑 콘서트를 개최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솜사탕음악회는 주민들의 고된 삶과 힘든 농사일 속에서도 희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콘서트로서 기다려지는 음악회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2015년 부터 장미축제, 심청축제, 석곡코스모스음악회 공연을 통해 지역민들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나주 국제농업박람회, 목포 세계마당페스티벌, 나주 목사골시장 중소기업 공연, 남원 하이트콘도 경로 위안 공연 등 타 지역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공연에 참가



하여 지역의 홍보대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요양원, 병원 등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 따뜻한 음악으로 위로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마을 주민들

에게 직접 찾아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예술인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교육문화부문

고달초등학교 교사 손형구



교육문화부문 효문화상은 투철한 교육관으로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과 인성교육 활동에 최선을 다해 37년간의 교육자로 봉직한 고달초등학교 손형구(60세) 교사가 수상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다.

가는 곳마다 제자 사랑으로

손형구 교사는 곡성교육청 실천중심장학자료 개발위원(2006), 사회과 탐구자료 1,2학기 집필위원(2008~2009), 기초기본학력 지도 우수 공로로 교육장상(2008.12.26.)을 수상하였다. 이 외에도 '99가

지 수학이야기' 집필위원(2009), 도지정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 자유탐구대회 금상 수상 등, 가는 곳마다 제자들의 학력증진 및 좋은 수업 일반화로 학력향상 우수교원으로 선정되어 곡성교육상을 비롯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과 아무라도 받기 힘든 모범 공무원상을 받은바 있다.

밝은 학교 문화 조성

20여 년간의 보직교사 경력을 토대로 미래를 선도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죽곡초등학교(2008.4.1.~2009.2.28) 재직 중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컴퓨터를 공급하여 전남사이버학습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활용 가정학습 방법을 익혀 학력향상에 기여했다. 그리고 삼기 사이버

서관, 학교홍보 동영상방을 구축하여, 삼기·통명·삼평초등학교 사진 102장을 수집하고, 연극제 공연모습 외 25개 영상 자료를 탑재하여 학생 및 학부모 지역민에게 홍보하는데 기여하였다. 전남교육신문에 교육 실천사례(무한리필 사랑으로 행복한 학습을 만들어요)를 투고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어린이 인성교육에 앞장서 밝은학교 문화 조성에 공헌했다.

평생을 남다른 교육으로 존경받는 스승

한편 농산촌 어린이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기 위해 자율동아리 중창부를 조직하여 동요부르기 지도를 통해 밝고 고운 심성 기르기에 노력한 결과 기차마을 어린이한마당 축제 심진강 동요대회 느티나무상(대상, 2011.5.5.), 2012.심진강어린이 동요대회 중

창부 최우수상(전라남도 교육감상), 꼬마잠자리 전국환경동요대회(2012, 환경부장관상) 대상, 광주CMB방송국 주최 동요대회 중창부(2012) 우수상 등 많은 수상의 영광을 갖게 되었다. 이 외에도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GMS 좋은 아침운동, 스포츠클럽 지도로 풋살부 2위, 여자탁구 1위의 실적 등 우수 역량을 발휘하였다. 이와 같이 평생을 남다른 교육으로 사도를 실천하여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고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에 크게 공헌한 손형구 교사에게 군민의 뜻을 모아 감사를 드리며 그와 함께한 수많은 제자들의 앞날에 큰 축복 가득하길 바란다.

정지장군 옥과미라사대첩비 제막식 거행

정지장군 옥과미라사대첩비 건립

정지장군연구유적보존회(회장 정득채)는 2016년 3월 26일 겸면 남양리 장파봉아래 목화공원 국도변에서 유근기 군수를 비롯 각급기관장, 유림, 하동정씨 후손과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지장군 옥과미라사대첩비 수립 제막식을 성대히 거행했다.

이날 제막식은 630년 전 고려 말엽 왜구의 잦은 침탈로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연명하기조차 어려워 생활터전인 농지를 버리고 고향을 이주하는 등 극심한 혼란 가운데 중랑장 정지 장군이 순천병마사로 부임하면서 옥과현 장파봉 아래 미라사에 집결한 수백 명의 왜구를 포위해 전멸시킨 전승을 기리고자 옥과미라사대첩비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정지장군연구유적보존회장인 정득채 후손은 "역사의 처참한 현실을 현창(顯彰)하고 정지장군의 용맹과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곡성문화원과 사단법인 정지장군연구유적보존회에서 주축이 되어 후원금을 모아 역사의 현장인 장파봉 아래에 정지장군의 대첩비를 건립하게 됐다"며 "항왜정신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려말 정지장군의 곡성 장파봉 미라사대첩 인터뷰

KBS순천R. 삼산이수 투데이(20131202 / 17:40~17:50)에서 '우리 지역 문화유산 답사기 15' 고려말 정지장군의 곡성 장파봉 미라사대첩을 중심으로 남해안역사문화연구소 정의연 소장을 모시고 인터뷰한 내용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Ann : 고려 삼대 명장하면, 최영, 이성계, 정지장군을 말하는데요. 최영과 이성계는 잘 알려져 있지만, 정지장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정지장군은 해군의 시조라 할 만큼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특히, 최초로 수군을 창설하였고, 전함에 대포를 장착한 분이죠. 그리고 24번의 전투를 치루면서 대부분 승전하였고, 임금으로부터 11번의 포상을 받은 위대한 분입니다. 오늘날은 고려말의 명장 해도 도원수 정지장군의 곡성 절골 미라사대첩에 대한 이야기를 남해안역사문화연구소 정의연 소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Q-1. 정지장군의 여러 전투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곡성 장파봉 미라사전투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전투였죠.

Answer_ 예, 그러니까, 우왕 4년(1378) 10월인데요. 고려말 왜구들이 곡성을 3회에 걸쳐 침탈하였죠. 그 중 고려군은 화순 동북 철용산성에 주둔할 때었는데, 왜적 500여명은 옥과현(玉果縣) 장파봉(將破峰) 아래 미라사(彌羅寺)에 총집결하였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정지장군은 왜적을 섬멸하기 위해 동북에서 안성, 용곡, 이천을 거쳐 옥과현 가곡(柯谷)까지 도착했는데도 왜구들이 보이지 않았던거죠. 이에 정지장군은 잠시 망설이고 있었는데 기병이 와서 이르길, 왜적들이 겸면(兼面) 마전리(馬田里)를 빠져나가 장파봉 아래 미라사라는 절에 숨어들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이 장파봉은 마전리에서 오르는 준령과 겸면 중심부인 남양리에서 오르는 준령 그리고 산정리에서 오르는 준령이 이어져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겸면사무소가 있는 면의 진산인데요. 정지장군은 장파봉 정상에 올라가 왜적에게 항복하라고 권하면서 항복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으나 대답이 없자 왜적들에게 위협을 주고자 불을 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적들은 단 한 명도 항복하지 않았고 이때 불길은 미라사를 휘감고 모두 불탔고, 왜적들도 완전 섬멸 소사되어 모두 죽게 되었죠.

1주일간의 전투에서 정지장군은 말 100필을 노획했는데, 이곳 고을 주민들은

고맙다는 표시로 손수 마련한 떡과 술, 고기 등으로 3일간이나 전승한 우리 군사들에게 잔치를 벌여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 전투의 첩보를 조정에 올리니 우왕은 정지장군과 지용기(池湧奇) 장군에게 어찰과 각각 은 50량씩 하사했지만, 절골의 미라사는 오늘날도 쓸쓸히 전적(戰績)을 감춘 채 역사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Q-2. 우리나라는 국내나 외국의 침탈이 잦았던 곳으로 구국을 위한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전적지도 수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전투로 인하여 전해지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죠.

Answer_ 예, '도리깨타령'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1절 가사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이! 허이! 휴야! 휴야! 허이! 허이! 휴야! 휴야! 봄꽃 필 때 자란보리 하지되어 베었구나/ 허이! 허이! 휴야! 휴야! 허이! 허이! 휴야! 휴야! 가을 추수 입동 전에 논밭 위에 뿌린 보리/ 겨울잠을 자고나서 토실토실 잘도 익었네/ 큰 노력과 작은 노력 짝 뒤지가 가득찬다/ 허이! 허이! 휴야! 휴야! 허이! 허이! 휴야! 휴야!

(후렴)

장파봉의 왜구 섬멸 포위망을 좁혀가듯/ 몰아치고 돌려 치니 갈 곳 없이 다 부숴진다/ 만세 만세! 정지장군! 장파봉 대첩 만 만세!

Q-3. 이곳 마전리(馬田里)의 지명유래가 정지장군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지명유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죠.

Answer_ 예, 정지장군은 왜적을 무찌르고 겸면 마전리 절골에 와서 말을 메어놓고 쉬면서 마전리의 형세를 보니 말과 같았고, 마을 중심으로 흐르는 말에 물을 먹여 목을 축인 다음, 적장의 목을 베어 난을 평정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정지장군이 승진하게 되



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 마을을 마전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정지장군은 위대한 고려시대 역사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분인데도 24번의 전적지 뿐 아니라 해군의 시조라는 것조차 알려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뼈아프고 서글픈 과거 역사라 보아집니다. 정지장군의 호국정신과 항왜정신(抗倭精神)을 우리는 고양하고 잔악무도한 왜적들을 섬멸한 곳에는 기념물을 세워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지장군 대첩비 제막식 앞에서

경영골 정지장군께서는 고려말 국내외적으로 나라가 어지러울 때, 오직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투옥생활을 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지조와 절개를 지킨 선비요, 충신이요, 명장이셨습니다. 대한민국 수군의 창설이 정지장군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해군함에 '정지함'이란 이름이 있을 정도로 남해안과 전국 내륙지방을 약탈했던 왜구 격퇴를 위해 일생을 바치다 돌아가신 잠으로 훌륭한 분이십니다. 고광운 문화위원은 축사에서 "오늘 더욱 뜻 깊은 것은 우리 고장 이곳 장파봉아래서 수백명의 왜구를 섬멸하고 왜구 소탕에 일생을 바쳐 온 위적을 재조명하고자 대첩비를 세우게 되었으니 곡성문화원으로서 감개무량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이야말로 정지장군의 열과 용맹스런 위상이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기행의 장소요, 소중한 충효인성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길이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글/곡성문화원 팀장 배숙영

천년고찰 태안사를 품은 곡성의 명산 봉두산(鳳頭山:桐裏山)



봉두산은 전남 곡성군 죽곡면과 순천시 황전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산봉우리가 봉황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봉두산이라고 한다. 봉두산 밑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산이 동리산이다. 동리산 품에 태안사(泰安寺)가 자리하고 있으며 태안사(大安寺)라고도 한다. 일주문(전남

유형문화재 83)의 현판에는 '동리산(桐裏山) 태안사'라고 쓰여 있다. 태안사를 둘러싼 산세가 봉황이 즐겨 앉은 오동나무의 줄기 속처럼 아늑하다고 해서 동리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봉두산은 여덟 세월 건너온 태고 신비 그득, 천년전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듯 밀림 속에 들어온 느낌이다. 가랑잎이 등산로에 가득 쌓여 인공의 때가 적게 묻은 자연 그대로의 산임을 짐작케 한다. 산행은 태안사 일주 코스와 죽곡면 상한마을에서 시작하여 북서쪽 능선을 타고 정상에 오르는 코스가 있다. 태안사 일주 코스는 산길이 가파르지 않고 산행 시간도 짧다. 태안사 경찰충훈탑을 거쳐 계곡을 따라 오르면 안부에 이른다. 안부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다시 서쪽 능선을 오르면 우뚝 솟은 정상이 하늘을 받치고 솟아 있다. 정상에서 바라보면 지리산, 조계산 등 크고 작은 산과 섬진강이 시야에 들어온다. 동쪽으로 동주리봉과 자라봉이 멀리 지리산이 건너 보인다. 남서쪽으로 삼산과 희야산 능선 너머로 모후산이 우뚝하게 서있고, 북서쪽으로는 아늑히 자리잡은 통명산, 무등산까지 시야가



트이다. '봉두산' 앞산인 비래봉 아래 구룡마을은 고려 개국공신 신승겸 장군의 출생지이다. 봉두산 정상에서 남쪽 능선을 타고 태안사로 하산한다. 태안사는 통일신라 경덕왕 772년, 법명이 알려지지 않은 신승(神僧) 셋이 절터를 잡고 태안사라 하면서 개산한 것으로 전한다. 태안사가 한국 불가를 크게 선양한 계기는 혜철선사가 47년(문성왕 9년) 이 절에 주석하면서 동리산문을 연 때부터였으며 절 이름도 태안사로 바꿨다.

봉두산 산행은 태안사를 기점으로 산을 한 바퀴 도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우선 태안사 경내에서 약 3백m 위에 위치한 성기암에 올라 시원한 생수를 물통에 채운 뒤 본격 산행을 시작하는 게 좋다. 능선은 다소 가파른 구간

이 길게 나타나지만 계곡은 온통 맑은 숲길이다. 정상에서 태안사 선원까지는 대략 1시간 남짓, 비교적 쉬운 하산길이다. 태안사 경내에서 흐르는 냇물을 따라 내려오는 길목에 냇물을 가로지르는 누각이 하나 나타난다. 풍경소리, 독경소리가 어우러진 태안사의 고즈넉한 자태가 한줄기 숲속 하늘 바람에 봄기운이 넘쳐나면 고색이 짙은 능파각이 협곡의 풍치와 기묘한 조화를 이룬다. 누각에 앉아서 정면에 서있는 경찰충훈탑을 바라본다. 1950년 7월 29일 북한군 603기갑연대가 곡성 압록교를 지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록교 부근에 매복하여 기습을 가해 북한군 55명을 생포하거나 죽이고, 트럭과 싸이가 및 총 70여 점을 획득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해 8월 6일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우리 경찰은 그들과 맞섰으나 결국 48명 전원이 전사했다. 이때 태안사는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그 이후 그들의 충혼을 기리고자 성금을 모아 경찰충훈탑을 세우게 된 것이다. 문득 몸서리치는 6.25때 전사한 동생과 그 가슴 아픈 충격으로 돌아가신 따뜻한 어머니 품속이 그리워 눈시울을 적신다. 능파각에 누워서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에 취해 태안두견으로 애환을 달래곤 했던 우리 조상들의 생활모습에 찾아본다. 천년고찰 태안사를 품은 봉두산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우리 곡성(谷城)의 명산이다.

글/곡성문화원 이사 한종태



곡성군재향군인회



곡성군재향군인회 회장 임채민

곡성군재향군인회(회장 임채민)는 1961년 12월 29일 재건총회를 통해 설립되었다. 11개 읍·면회로 조직되어 있고 현재 총회원수 1,500여명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3~24대 임채민 회장을 중심으로 향군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종 안보행사와 현안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호국안보의식 고취와 안보 지킴이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읍면조직 현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화합과 소통으로 실질적인 조직 육성 11개 읍면 정기총회를 통해 읍면회원 격려 및 조직을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안보역량강화로 향군의 위상을 고취시키고자 울곡포럼 안보강좌를 연 2회(전반기 6월, 후반기 10월) 실시하고 있다. 매년 5월 중 6.25전쟁기념 평화통일기원 곡성군 초·중·고생 백일장대회를 개최하여 미래의 국가를 이끌어갈 전후세대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심어 주고 있으며 국가안

보의 흔들림 없는 길잡이 역할로 정성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일본 역사왜곡 철회 서명운동 전개 등 안보 현안 발생 시 곡성군호국보훈 안보단체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규탄행사를 가져 지역민의 안보의식 제고에 큰 역할을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석맞이 관내 간이 버스정류장 주변 대청소 실시 및 어려운 이웃에게 훈훈한 마음을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화합 단결은 물론 향군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곡성군 재향군인회는 최근 2016년도 안보현장견학 호국순례 행사를 가졌다. 이번 안보현장견학 호국순례에는 향군 임직원과 6·25참전유공자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세계평화와 자유의 대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몰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재한 유엔 기념공원 기념관 참배와 견학을 했다. 오후에는 부산지역의 항일 독립투쟁의 역사적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부산광복기념관 견학을 하였고, 경남 사천에 위치한 21C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항공우주박물관 견학을 실시했다.

임채민 향군회장은 “세계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한 유엔군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투쟁한 독립투사와



국가유공자들을 참배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나라를 위한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계승해 국가안보의 주역이 되자”고 강조했다. 곡성군재향군인회는 향군활동의 참여와 활성화로 전후세대의 올바른 안보관 확립과 호국정신을 함양하며 지역 공공시설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자랑스러운 곡성향군상을 위해 오늘도 임채민 회장을 중심으로 굳건한 안보의식 함양의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글/곡성군재향군회 사무국장 양찬호

곡성군 대한민국창조경제 대상, 광주·전남지방자치경영 대상 수상



곡성군이 최근 외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군민행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6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16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에서 창조경제 영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는가 하면, 4월 25일에는 ‘2016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 행정서비스 부문과 문화관광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민선6기 두 돌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수상은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이루어낸 것이기에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이동군수실, 버스를 타고 군민과 소통하는 행복나눔 군수실, 희망곡성 청년파트너 출범을 통한 군민과의 소통,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운영 등 군민의 군정 참여와 소통의 행정 성과로 본다.

“앞으로도 군민과 관이 ‘줄타동시지’의 관계에서 함께 노력하며 행복한 곡성을 만들어 갈 것이다”는 유근기 군수의 다짐처럼 군민과 공직자의 자율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글/곡성문화원 이사 성숙자

곡성경찰, 기차마을서 4대 사회악 근절 홍보활동



곡성경찰서(서장 오상택)는 지난 4월 27일 곡성기차마을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4대 악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홍보는 직접 찾아가는 대면홍보 방식으로 진행하여, 곡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직원들이 증기기관차를 탑승하고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내용을 상세히 알리며 포퓰이, 포순이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

는 등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곡성경찰서(서장 오상택)는 최근 곡성군이 주최하는 재능키모나 프로젝트 합동의 날 행사에 학교전담경찰관이 이끄는 경찰 자율동아리 ‘단결’ 멤버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우범지역인 곡성고등학교 앞 골목에 벽화를 그리며 새롭게 단장된 골목에서 학교폭력, 깡역 등 청소년 비행과 탈선을 막아 지역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글/곡성문화원 간사 이옥희

곡성경찰서장, 선행 학생 찾아 상장 수여



4월 26일, 곡성경찰서 오상택 서장은 학교 등곳길에 노상에서 현금 일만원을 주워 주인을 찾아달라며 112에 신고한 옥과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연아, 박세영 학생을 직접 방

문하여 선행 학생 상장을 수여했다. 오상택 서장은 “어린 학생들의 정직한 마음을 칭찬하고자 직접 찾아가 상장과 상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물 아홉..** 열네 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서른 일곱..** 자식이 국민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뒀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빛바랜 액자가 걸려있습니다.

***마흔 셋..** 주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흔 여덟..** 자식이 대학입학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쉰셋..**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의를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내의를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예순하나..**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함박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은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효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자식에게 항상 "뽀뽀"하며 입맞춤으로 사랑했습니다. 성경(시편 2장 12절)에서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입맞춤은 "결합하다"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사랑하다.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입맞춤은 부모-자식간의 감동 어린 사랑의 표현이요, 희생하며 결합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까지 부모가 쏟는 정성은 대단합니다. 자기의 온 정성을 쏟아 붓습니다.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지식 잘 되기를 바라며 희생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분신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보면 기뻐하고, 온갖 희생적인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는데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현대사회를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의

'3무 시대'라고 합니다. 부모를 보아도 기뻐하지 않고, 부모님께 대한 감동 어린 효도를 찾아보기 힘들고, 형식적인 효도로 아예 부모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무책임, 무관심을 방자한 속어(俗語)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예표(豫表)입니다. 세상에 자녀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에베소서 1~3절)"고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친히 명령하신 십계명 중 제 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나를 낳아 주시고 나에게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일생동안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을 존경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권위를 높이고 품위를 세우면 여러분의 자식들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사랑은 존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모든 참사랑은 존경에 기초합니다(G빌리어스). 우리가 어떤 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크리스틴드 스워드)." 이 시대 풍조는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존경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우선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존경이 수반된 효야말로 참된 효도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고 비난합니다. 부모님에게 제사도 드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나 기독교처럼 효도를 강조한 종교도 없습니다. 성경(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는 3대와 함께 번제(燔祭) 화목제(和睦祭) 속죄제(贖罪祭祀)를 드렸습니다. 모세야말로 사랑의 효도요, 존경의 효도를 실천하신 분입니다. 기독교의 효도는 죽은 뒤 제상 잘 차리지 말고 살아 계실 때 효도하는 실제적 종교입니다. 살아 계실 때 불효하다 돌아가신 뒤 아무리 잘 차려봐야 오셔서 잡수시겠습니까? 아버지 주일을 맞이할때마다 오래 전 내결을 떠나가신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수욕정이풍부지(樹慾靜而 風不止) 자욕양이친부대(子慾養而 親不待)"라고 말씀하시던 교훈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나무는 머무르고 싶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공양하고 싶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한시외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라는 이 글귀는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참된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녀들이 효도하는 복된 가정이 됩니다.

글/ 목사동교회 목사 김기철



곡성군의회(의장 이국섭) 상반기 의정실무 연수 · 학생자치의회 출범



곡성군새마을회(회장 박준식)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평통곡성군협의회(회장 김판준) 청년대상 통일현장교육



곡성군(군수 유근기) 단체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



곡성문화원

곡성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지방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곡성군민들의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증진시키며 군민의 문화예술적 감성을 개발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사업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7.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곡성문화원 문화예술 진흥 주요 추진 사업

문화행사의 개최

- 저명 문화예술인 초청 강연회
- 초·중·고 학생 진로 멘토와의 만남
- 효녀심청 유치부 사생대회
-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공모전
- 우리 가락 판소리 심청가 한 대목 부르기 대회
- 곡성효문화상 공모
- 청소년 향토문화 강연회
- 곡성 자연환경·문화관광해설사 양성
- 곡성사랑체험활동
- 곡성문화예술단과 함께하는 한가위 노래자랑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 지역 향토자료 조사 및 역사마을 만들기
- 효경칭찬생활문화 운동 실천 사례 발굴
- 곡성문화 소식지 발간
- 내 고장 인물 및 유적지 안내도 제작·홍보
- 향토자료 발간
- 곡성 & 심청스토리 공감 자료관 조성 사업
- 나라사랑 민족사랑 호국보훈 지킴이
- 골짜나라 문화재 지킴이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 교육 활동

- 향토문화유적지 순례
- 가훈 및 회화 써주기
- 고대인물 알리기 및 서화 전시회
-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곡성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 우리가락 판소리 심청가 배우기 판소리 교실
- 학교 문화예술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자운영 독서교실
- 청소년을 위한 곡성 바로 알기 인문학 프로그램
- 어르신 문화학교 제 2의 푸르름 청춘예찬 공예
-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 골짜골짜 문화재 찾기 프로그램 운영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 주민극단 미당극 심청전 여성극단 운영
-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협력사업
- 애 가고 싶은 곡성 우리 모두 홍보대사
- 현충 시설 및 문화유적 탐방 체험



향기·사랑·꿈

수천만송이 세계명품 장미,
그 동화나라 속으로

제6회 곡성 THE 6TH INTERNATIONAL
ROSE FESTIVAL, GOKSEONG

세계장미축전

2016. 5. 20. 금 - 29. 일 10일간 곡성섬진강기차마을



곡성군
GOKSEONG COUNTY

www.simcheong.com
안내·문의 (061)360-8252

